



‘제19회 송혜수 미술상’ 판화가 강동석 작가 선정



판화가 강동석

우리나라 화단 1세대 서양화가인 故 송혜수 (1913 ~ 2005) 화백은 부산을 대표하는 미술 작가로 살아생전 송혜수 미술연구소를 설립해 후진 양성에 힘쓰며 미술계의 주축을 이루었다. 2005년 타계 직전에는 사재로 기금을 마련해 송혜수 미술상을 제정하는 등 한국 화단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송혜수 미술상은 故 송혜수 작가의 정신을 계승하여 화단에서 왕성한 창작 활동을 펼치며 미술문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미술인을 발굴하기 위한 미술상이다. 2006년부터 매년 시상해 온 송혜수 미술상은 미술인의 자긍심을 키워주고 화단 발전에 기여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어 한국 미술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올해로 제19회를 맞은 송혜수 미술상 선정 심사가 지난 4월 4일(사)부산미술협회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그 결과 꾸준한 작품 활동으로 부산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강동석(판화) 작가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제19회 송혜수 미술상’ 심사위원회 김수길 심사위원장은 “강동석 작가는 인물(얼굴)을 주제로 독특한 기법을 모색하여 다양한 선과 색의 변주로 인간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였고 자신만의 조형 언어를 구사해 나가는 훌륭한 작가로 생각한다. 그의 작품은 전통적인 양식보다는 새로움을 추구해야 하는 시대적 변화를 인식하기에 충분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심사는 최근 10년간의 작품 활동을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 합산하여 진행하였고 정성적



Persona-2_96 x 80cm, 목판화, 2016.



Persona 일부_82 x 40cm, 목판화, 2019.

평가는 작품의 창의성, 작가 및 작품이 문화예술에 미치는 영향, 송혜수 미술상 목적에 부합하는가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한 종합적 평가를 진행하여 선정하였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강동석 작가는 경성대학교 회화과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판화과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대학원 판화학과 석사 졸업 후 현재까지 총 19회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1999년 대한민국 미술대전과 일본 교토 국제목판화협회전에서 각각 대상을 받았다. 2014년에는 (사)부산미술협회가 주최하는 ‘오늘의 작가상’ 본상을 수상하는 등 왕성한 활동으로 주목받아 왔다. 또한, 판화와 서양화 등 장르를 넘나들며 다양한 재료 사용과 표현 기법을 구사하여 창의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아 개인의 작품세계를 넘어 부산미술의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지금껏 개성을 중시한 새로운 이미지를 추구해 온 강동석 작가는 붓이 아닌 손과 이질적인 재료를 이용해 빠르고 거칠게 그린 형상을 재구성하여 내면의 의식과 일상의 이야기를 담아내며 자신만의 독특한 조형 세계를 구현해 내고 있다. 그는 살면서 느꼈던 수많은 감정과 경험에 주목하고 광기와

유희 또는 이성을 필요로 하는 작업 등 목판화나 회화작업이나에 따라 각기 다른 작업방식을 채택하는 이중적 작업을 시도한다. 광기와 유희를 기반으로 하는 아크릴 회화작업에서는 어려운 삶과 환경에서 술과 더불어 작업하며 무의식 상태에서 그려진 다른 차원의 얼굴을 발견해 목판화 작업의 주제로 이용하기도 한다. 작업 시 무의식적으로 그려진 형상에서 자신 내면에 존재하는 또 다른 자아의 이미지화에 놀라고 즐거움을 느끼게 돼 행복하다는 작가는 판화 ‘페르소나 시리즈’ 작업에서는 주로 인물들의 독특한 표정이나 미묘한 감정을 포착해 목판에 그려내고 있다. 내면의 무의식 세계와 존재에 대해 성실히 탐구해 나가는 그에게 이처럼 그리고 새기고 찍어내는 공정은 이성을 환기하고 감성적 공감과 사유를 즐기는 생명줄 같은 것이다.

한편, 강동석 작가는 가슴 속에 묻은 어두움을 호탕한 성격과 들끓는 에너지로 표출하며 몸부림치듯 순식간에 목판 위에 드로잉해 다이나믹한 선의 움직임으로 리드미컬한 화면을 만들어 낸다. 그의 드로잉은 선과 면의 개념이 없다. 선이 면이요 면이 선이다. 선도 면도 아닌 행위 그 자체이다. 이 작

업이 끝나면 목판에 글자 한 자 새길 때마다 세 번 절 했다는 조선시대 판각장 연희(演熙, 17C 후반)의 정신과 시간 속으로 빠져들어 아주 작은 세모 칼로 형상을 판각하고 큰 등근 칼과 평칼로 여백을 마무리한다.

이에 대해 강동석 작가는 “나의 내면 의식과 일상의 이야기를 담아 목판 위에 드로잉하고 전사해서 찍어내는 긴 공정을 통해 나만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게 된다”며, “판화는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숙명적인 동반자 같은 것이며 무한히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며 노력하는 것이 제 소임을 다하는 것이다. 이는 소외된 장르에 대한 연민, 그리고 누군가는 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부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7살 때 고향 시골에 있는 교리 수업에서 나눠 준 흰 종이에 찍힌 점을 이은 선이 예수님 형상이 되고, 그 위에 색을 칠했던 것이 계기가 아니었나 싶다. 그 후 선배 화가님들의 가난과 고독한 삶에 대한 매너리즘에 빠져, 존경과 더불어 예술가의 책무와 그분들의 삶을 이어가고자 하는 맘이 동기가 됐던 것 같고, 이로써 오늘날까지 순수와 숭고를 지향하며 작업하게 됐다”고 덧붙여 고된 작가로서의 삶이 시작된 계기와 그 삶을 이어온 투철한 작가의식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올해 3회의 개인전과 국내·외에서 열리는 다양한 단체전에 참여해 더 많은 이들에게 작품을 선보여 자신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목표라는 강동석 작가는 “지속적인 실험과 작업을 통해 새로운 기법과 소재, 그리고 또 다른 의식의 사고를 도입하여 작업의 다양성을 높이고 끊임없이 진화·발전해 나가 더욱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는 작품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며 작품에 대한 의지와 앞으로의 작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만이 지닌 조형 언어와 표현방식으로 묵묵히 한 길을 걷고 있는 강동석 작가는 이번 송혜수 미술상 수상에 대해 “무엇보다 좋은 후보들이 많았는데 부족한 저를 뽑아주신 심사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 내려놓는 마음이었었는데 이런 큰 상을 받게 돼 매우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한다. 판화라는 어려운 장르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도 곳곳이 작업해왔던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듯해 지난날들에 대한 회한이 밀려온다”고 말하며, “이번 수상은 제가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것 같다. 말없이 지켜봐 주고 격려해 준 가족과 주위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욱 정진하여 좋은 작품을 위해 작업에 매진할 것을 다짐해 본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혜수 미술상 수상자인 강동석 작가는 오는 10월 금련산갤러리에서 시상식과 함께 1주간의 전시를 펼칠 예정이다. 시상식에서는 지원금을 포함한 시상금 1천만 원이 작가에게 수여된다.



Vincent Ban Gogh_71 맨슬-1485_4절, 아크 x 54cm, 목판화, 2020. 릴, 2021.

2023년도 제1차 이사회

(사)부산미술협회 2023년도 제1차 이사회가 3월 24일 부산에 술회관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보고사항으로는 △2022년 제89차 정기총회 결과 △31대 임원 워크숍 결과 △조각분과 특별전 △수채화분과전 <100 + 100인의 동행> △(박국영과 친구들)

전 △부산미술협회 부산미술원 로작가회 창립총회 △2023년도 주요행사 개최일정 확정 건이 있었다.

안건은 재직 이사회의 재직 이사 총 63명 중 42명이 참석하여 심의 의결되었다. ▲안건1 제19회 송혜수 미술상 운영계획 건

▲안건2 제32회 부산자랑10가지 순회시민예술제 운영계획 ▲안건3 제34회 부산청소년미술캠프 운영계획 건 ▲안건4 제36회 부산청소년예술제 운영계획 건 ▲안건5 2023 '부산! 미술로 꿈을 꾸게 하다' 청년작가展 운영계획 건 ▲안건6 제43회 부산미술제 사업계획 건 ▲안건7 2023 제12회 BFAA아트페어 사업계획 건

▲안건8 제49회 전국공모 부산 미술대전 사업계획 건 ▲안건9 연회비 4년 미납 회원 제명 건 ▲안건10 신입회원·전과회원·탈퇴 회원 인준 건 ▲안건11 제32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 안건 10에서는 신입 회원 인준 심의로 총 18명이 승인됐다. 다음은 신입 회원 명단이다. △한국화 1명(양호정) △서양화 12명

(서민지, 김영웅, 이지운, 김연화, 안우정, 반은향, 정경희, 유경열, 장우정, 박재홍, 박여, 김혜숙) △서에 1명(권재태) △조각 4명(최영환, 허경준, 박성주, 이정) 기타 토의로는 상반기 갤러리 대관 광고 및 현황(금련산갤러리, 부평아트스페이스)에 대한 건이 있었다.

부산 미술 원로작가들, 부산미술의 새로운 역사를 열다

'부산미술원로작가회' 창립총회 열려
운영위원장에 송영명 원로작가 추대
오는 8월경 부산·서울서 창립전 계획



'부산미술원로작가회' 최고령 강선보 화백.

부산미술의 역사를 이끌어 온 원로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작품 활동을 통해 지역 미술 발전을 도모하고 부산 미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사)부산미술협

회 회원 중 75세 이상으로서 35년 이상 부산 미술계에서 서양화, 한국화, 수채화, 판화, 조각 분야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원로 작가 33인(한국화-이재진, 이종렬, 김수길, 최석규, 이양우, 최추자, 서양화-강선보, 윤종철, 박대련, 김문수, 삼재중, 정수경, 정태영, 김부용, 김기남, 김용달, 주경업, 조병래, 김동영, 이강운, 송영명, 차경복, 전준자, 장행자, 이충길, 송대호, 이길성, 이성재, 황중환, 수채화-조규철, 조각-장상만, 권달술, 판화-차동수)으로 구성된 '부산미술원로작가회'를 창립하고 총회를 열었다.

2023년 3월 28일 부산예술회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창립총회에는 회원 34명 중 29명이 참석해 정관 승인·임원선출·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등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의결했다. 회를 3년간 이끌어갈 운영위원장은 송영명 작가가, 운영위원으로는 김용달, 정태영, 권달술, 김수길, 조규철 작가가 추대되었고, 감사는 차동수 작가가 추천돼 전원 동의로 선출되었다.

이날, 75세부터 89세까지 연로한 원로작가들은 한걸음에 달려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오



2023년 3월 28일 부산예술회관 회의실에서 '부산미술원로작가회'의 창립총회가 열렸다.

랜만에 만나 설레는 얼굴로 서로 손을 맞잡았다. 건강과 안부를 묻는 회원들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즐거움과 기대가 가득했다. 작년 원로작가들의 모임인 '구인회'가 마지막 정기전을 열며 해산했고, 많은 원로작가가 작품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부산 근현대 미술의 성과를 이룩한 장본인들이지만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상황에서 정책적 지원 또한 적절히 이뤄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어두운 현실의 연속은 부산 미술계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에 사)부산미술협회는 부산미술의 원동력이자 가동인 원로 작가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더 늦기 전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사)부산미술협회 박대련 이사장은 “늦은 감이 있지만 원로 작가님들의 열정과 부산미술에 대한 애정으로 구심점 역할을 할 회가 결성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원로 작가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고 앞으로 원로 작가님들의 활동이 기대된다. 미술협회 차원

에서 아낌없는 후원을 하겠다”고 말하며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회가 자리를 잡는 시기 동안 전신 관련 사항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부산미술원로작가회 최고 원로인 강선보 작가는 “그동안 발기인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부산미술계 후배들에게 선배다운 모습을 보여 선배로서 해야 할 일을 찾아 좋은 업적을 이루어야 한다”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의지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부산 원로 작가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원로 작가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부산 미술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 작가들이 희망을 가지고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부산미술원로작가회 창립을 계기로 선배들의 모습을 거울삼아 후배 작가들이 한 걸음 더 성장하여 세계무대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부산미술계 원로 작가들이 활동 영역을 넓혀나가 후배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부산미술원로작가회' 창립을 환영하며

만물이 소생하는 춘삼월에 부산미술원로작가회가 늦게나마 결성된 것에 찬사를 보낸다. 부산은 지정학적으로나 인문학적으로 보아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다양한 요소를 지닌 해양 도시로서 외래 문화의 유입과 유출의 길목에서 토착성에 가미된 다질적 미술 풍토가 조성되었다고 하겠다.

해방 후 1946년에 부산미술협회가 자생적으로 전국에서 제일 먼저 태동하고 1950년 6.25 동란 때 수도권 대학이 부산에 집결되고 서울의 미술인들도 대부분 부산에서 활동하였다. 부산미술협회는 한국미술협회와 통합하여 미술 활동은 물론 중군 회가를 결성하여 전선에 참가하는 등 우리나라 미술계의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파란만장한 애환을 겪으면서도 고군분투하며 지역 미술계의 꽃을 피운 작고하신 선배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

《운고지산(溫故知新)》이란 말이 있다. “옛 것을 바로 익혀, 그 바탕에서 새로운 것을 일구어낸다”는 뜻인데 선배님들의 교훈을 담고 미술활동을 충실히 해 왔는지 부끄럽기 그지없다.

부산미술원로작가회가 타시도보다 늦게 결성했다고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뜻을 모아 지역 미술 발전을 도모하여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도록 노력하자. 부산미술의 정체성 바탕에서 오늘의 지역미술의 과제를 능동적으로 대체하고, 시민들이 미술문화 향유로 행복자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운영위원장 송영명

제34회 부산청소년미술캠프

진로와 작업에 대한 고민 나누며
꿈 디자인할 기회의 장 될 터
캠프 창작품 금련산갤러리서 전시



2022년 부산청소년미술캠프 참가학생들의 전시.

오는 5월 20일부터 28일까지 제34회 부산 청소년미술캠프가 열린다. 3월 6일부터 4월 21일까지 참가 신청한 부산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중 50여 명을 선발하여 미술 캠프와

전시회에 참여하게 된다. '부산청소년미술캠프'는 부산 미술 문화의 주축으로서 21세기를 주도할 청소년들이 자신감과 열정으로 자신의 미래상을 확립하고 꿈을 디자인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열고 있다. 사)부산미술협회가 이를 위해 14명의 운영위원을 구성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부산 지역 중·고등학교, 대학교 현직 교사·교수들이 운영위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이번 부산청소년미술캠프는 5월 20일, 21일 양일간 부산보건대학교에서 미술캠프를 열어 작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진로와 미술 작업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게 된다. 이어 5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금련산갤러리에서 학생 상호 간의 협업으로 탄생한 창작 작품 전시회를 열어, 전시 체험 등 작성과 흥미에 맞는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설계하기 위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본 행사는 창의적인 인재를 발굴하여 육성하고 청소년들의 미술 계열 진로에 대한 정보 제공과 상호 교류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제37회 부산청소년예술제 학생그림공모전

청소년 예술문화 육성 위해
부산시내 중·고등학생 그림 공모
5월 22일부터 수상작 전시회 열려



2022년 부산청소년예술제 학생그림공모전 수상기념 사진.

2023년 봄소식과 함께 부산의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의 개최 소식으로 미술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부산 예술단체총연합회가 공동주최하며 사)부산 미술협회가 주관하는 '제37회 부산청소년예술제 학생그림공모전'을 개최한다. 3월 27일

부터 5월 12일까지의 공모기간을 거쳐, 접수는 5월 1일부터 12일 오후 5시까지 도착분에 한한다.

본 행사는 청소년들이 미술 활동을 통해 풍부한 감성 표현과 예술적 소질을 계발하고 진로 선택의 폭을 넓혀주며 청소년 예술 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행사로, 부산시내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수채화, 한국화(수묵화·채색화), 파스텔화, 판화, 이미지디자인(사고의 전환, 발상과 표현), 서예, 문인화 작품을 공모하여 시상하고 있다.

심사는 부산미술협회에서 위촉한 전문미술인들의 심사를 거쳐 대상(부산광역시교육감상 1명, 부산광역시교육감상 2명), 특별상(부산 예술단체총연합회회장상 2명, 부산미술협회 이사장상 6명), 운영위원장상(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약간 명), 특별상(우수지도교사상 부산광역시교육감상 2명)을 선정한다. 심사 발표는 심사 후 10일 이내 협회 홈페이지에서 게재할 예정이다. 수상작 전시는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부산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이작기를 18 주목한다

글 : 정연은(미술평론분과위원)

조각가 이정윤



봄날의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던 어느 날 오후 금정구 두구동에 있는 “봄빌(Boomvill)”을 찾았다. 이정윤 작가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시원스럽고 밝은 느낌의 작가가 웃으며 우리를 맞아 주었다. 작가의 작업실 “봄빌”에 들어서면 순간 “여기가 어디지?”하는 의문과 함께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제조공장같이 넓은 공간에 여기저기 그 쓰임새를 알 수 없는 공업용 도구들이나 다양한 유리 제품은 이내 궁금증을 자아내었다.

우선 작가의 작업 공간, “봄빌”이 궁금하여 작가에게 물었다. 봄빌은 “유명한 동네” 즉 봄 빌리지라는 뜻인데, 여기에 더해 이 장소가 그 어느 곳보다 더욱 새로운 창작의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곳의 이름을 봄빌이라 정했다고 한다. 알고 보니 봄빌은 이정윤 작가의 작업실이기도 하지만 연극, 영상, 무용 등 다양한 예술가들과 협업이 이루어지며 또 교육과 각종 예술행사를 주도하는 공간을 말하는 상호이기도 했다.

이정윤 작가는 2009년부터 “코끼리 작가”로 알려지기 시작한 작가다. 그래서인지 필자 자신부터



The song for living and leaving _30x30cm, glass, plants, fusing, 2020~2021.



A Trunk on the edge _700x150x300cm_PVC, air motor, 2015.



Dear, super daddy _430 x 300 x 300cm, PVC, air motor, 2011.



Silkroad _160 x 1600cm_일반인들로부터 기부 받은 넥타이, 2015.

이정윤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코끼리”였음을 고백한다. 작가가 만드는 코끼리는 풍선 코끼리이다. 풍선 코끼리는 거대하게 부풀었다가 바람을 빼버리면 램프 요정 지니와도 같이 그만 트렁크 안에 들어가 버리는 속성이 있다. 그렇게 기발하고 재미있는 작품을 만든 이유를 작가는 “우리들의 일상에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쉬운 미술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런 고민 끝에 육중한 코끼리를 작아지게 해서 트렁크에 넣어 간편하게 들고도 다닐 수 있는 코끼리가 탄생한 것이다.

작가의 코끼리 작품은 다양하다. 2012년에는 코끼리 봉제 인형 350개를 만들어 350명의 사람에게 소포로 보냈다가 1년 뒤인 2013년에 다시 돌려받아 돌아온 코끼리의 그 상태 그대로를 가감 없이 보여주는 전시 <Round Trip: returned elephants>(2012), <Re: Round trip>(2013)을 진행한 바 있다. 한 작가의 손을 거쳐 생산된 자그마한 봉제 코끼리 인형이 누구를 주인으로 만나느냐에 따라 그 인형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형 주인의 삶과 성격대로 제각각 꾸며지기도 하고 파손되기도 하고 혹은 분실되기도 한 결과를 보여준 전시다.

사람마다 자신의 카르마에 따라 삶의 형태와 내용이 달라진다는 프랑스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의 <심판>이라는 책이 설명하듯이 봉제 코끼리 인형들이 우리 인생의 카르마를 그대로 보여주고자 기획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듯 이정윤 작가의 작품은 어린이의 시선으로 보면 한없이 재미있고 신기하지만, 작품을 내면으로 들어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 인생의 깊은 통찰을 깨닫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작가 이정윤은 이 코끼리 시리즈 외에도 600개의 넥타이를 붙여서 길처럼 만든 <넥타이 로드>나 내부를 먼저 경험해야 외부 볼 수 있는 <숨 쉬는 통로>가 있다. 이들은 모두 관객참여형 작품이다. 누군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목에 매었을 넥타이로 만든 길, 작품 <넥타이 로드> 위를 처음 걸어봤던 어떤 연극배우는 결국 소리 내어 울고 말았다는 얘기에 필자 또한 격한 공감의 눈물이 맺혔음을 고백한다.

또 작품의 내부를 경험해야 외부를 경험할 수 있게 유도하는 <숨 쉬는 통로> 역시 우리가 놓치고 사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을 건드리는 철학적 관점을 담은 작품이다. 그 외에도 2021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유리 작업 등을 보면 한 사람의 작가에게서 생산되었다고 보기에는 너무도 다른 각각의 개성이 묻어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놀라움을 뿐이다. 하지만 이 작품들 모두 결국은 어떤 말로

도 다 못 할 ‘우리 인생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모두 다 같은 결의 작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이정윤은 정신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술치료와 어린이들을 위한 창의력 교육에 이르기까지 그 예술적 활동 영역은 다양하다. 그는 “이런 활동 안에서 스스로도 많이 배우고 깨닫는다”라며 겸손하게 말하지만, 작가의 이러한 예술치료나 창의력 교육과 같은 활동들은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술가로서의 소명감이 불타오르지 않았더라면 절대 불가능했을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은 결국 창작으로 이어져 우리의 영혼을 깊이 울리는 작품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듯 이정윤은 결코 자신의 정신을 모아가며 스스로를 한 곳에 정체되게끔 내버려 두지 않는 작가다.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하고 이끌어 가며 하루하루를 뜨겁게 살아가는 작가다. 그래서인지 이정윤 그는 자신의 거대한 풍선 코끼리처럼 자기 안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자아를 평범한 작은 가방에 잘 접어 넣고 언제나처럼 성실하게 일상을 마주하지만, 그의 예술을 향한 뜨거움은 자꾸만 가방 밖으로 튀쳐나와 거대하게 부풀어 오르는 것 같다.

작가의 작업실 “봄빌”을 나올 때는 내 마음에 무엇인지 모를 기쁨이 있었다. 아마 이정윤 작가의 내

면이 담긴 그의 작품에 흠뻑 취했기 때문일 것이다.



Garden_2020.



Green.zip _300 x 300x300cm, glass, flame, plants, 2020 ~ 2021.

부산대학교 미술학과 미술학박사
프랫 인스티튜트 석사(뉴욕, 미국)
이화여자대학교 미술학부 학사
<GREEN:내가 만난 초록>,
<여행하는 코끼리, 꿈꾸는 선인장>,
<핑크힐 코끼리>, <일상의 셔츠-통로>,
<포터블 뮤지움:sewing your time>,
<라운드 트립 프로젝트>,<Hi Heels Project> 등 2006-2022 총 21회(미국, 일본, 부산, 서울 등) 개인전 개최
그 외 120여회 그룹전 초대
2014 봉생문화재단 봉생청년문화상 시각예술부문 수상, 2012 부산문화재단 지원 선정작가, 2011 부산비엔날레 국제 바다미술제 우수상, 크라운 해태 입체조형공모전 대상 등 다수

2023 부산! 미술로 꿈을 꾸게 하다! 청년작가展



4월3일 금련산갤러리서 열린 2023 청년작가전 오리엔테이션.

5월 2일부터 21일까지 3부로 나눠 개최기간 중 우수 청년작가 선정 선정 작가 릴레이 개인전도 열어

2023년 제11회 부산! 미술로 꿈을 꾸게 하다! 청년작가展이 열린다. 사)부산미술협회는 부산의 유망한 청년 작가들을 선정하여 다양한 장르의 실험적인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비교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를 개최한다.

부산 청년작가들에게 열정적인 창작활동을 펼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부산 미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청년작가展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각 분야에서 많은 부산 청년작가들의 신청이 이어져 뜨거운 열기를 실감하게 했다.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23일까지 신청 접수한 부산지역 청년 작가들 중 선별하여 △1부-5월 2일부터 7일까지(한국화, 조소, 서예) △2부-5월 9일부터 14일까지(공예) △3부-5월 16일부터 21일까지(평면) 총 3부로 나누어서 금련산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시기간 중 선정된 우수 작가들은 개인의 역량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보여 줄 수 있는 개인전을 열어 집중 조명하게 된다. 우수 선정 작가는 7월 경 부평아트스페이스에서 릴레이 개인전을 펼치게 되고, 최 우수 선정 작가는 2024년 1월 중 서울 인사아트센터 부산갤러리에서 초대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매년 개최되는 청년작가展에는 사)부산미술협회 회원이거나 부산에서 활동하는 청년 작가, 부산 소재 대학교에서 미술 계열을 전공한 만 40세 이하 청년 작가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부산미술 단체를 찾아서

19

「부산사생회」

Since 1998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부산 최대 사생단체
현장 사생을 통해 생동감 넘치는 풍경을 화폭에 담다



2023년 3월 부산사생회 심방진 스케치 단체사진.



2003년 부산사생회보 창간호.

아외 사생을 통해 부산 미술인들의 단합과 미술 문화 발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부산사생회는 미술 단체 '구상21'에서 파생되어 창립한 후 현재까지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명실상부한 부산의 대표 사생 단체이다. 원로 작가부터 젊은 작가까지 다양한 세대로 구성되어 상경하에(上敬下愛) 정신을 바탕으로 서양화, 한국화, 수채화, 파스텔화 등 현장의 생생함을 전하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먼저, 부산사생회의 역사를 되짚어 보려면 25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998년 2월, 미술 단체 '구상21'은 박용대, 이영길, 이길성을 주축으로 하여 현장 사생을 목적으로 하는 '부산사생회'를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그해 3월 이길성 초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여 한상돈 외 104명이 참가하는 제1회 아외 스케치(진하 등대)를 실시한다. 그리고 이듬해 1월에는 제1회 동계스케치, 3월에는 창립전을 개최하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구상21'에서 운영해 오던 부산사생회는 2003년 박용대, 구윤옥, 서광범 3인을 공동회장으로 하여 독자적인 미술 단체로 거듭나면서 '부산사생회보'를 발간하는 등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친다. 그 후 현재까지 현장 사생을 통해 생동감 넘치는 풍경을 화폭에 담아내며 친선을 도모하는 등 대동 단합하여 부산 미술 문화의 창조적 발전과 위상을 증진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부산사생회는 정기 스케치뿐만 아니라, 동계 스케치, 교류 스케치를 매년 꾸준히 실시해 생생한 현장감을 전하고 있다. 월 1회 실시하는 정기스케치는 매월 둘째 주 토·일요일에 부산이나 애항심을 고취하는 데 적합한 근교 지역을 선정하여 당일 일정으로 진행하며, 매년 1회 1월에 실시하는 동계 스케치는 1박 2일 동안의 장거리 여행을 통해 회원 간 화합을 다지고 있다. 그리고 지역 간 미술 문화 교류와 미술인들의 친선 도모를 위해 타지역(6개 광역시)의 사생 단체와의 교류 스케치와 전시회를 열어 부산의 미술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현재 제17대 유선경 회장을 중심으로 자문위원(박용대, 서광범, 이영길, 최영근)과 부회장(김시용, 김이영, 이정은) 사무국장(손용준, 총무(강창욱, 윤옥연) 감사(김명수, 박정숙), 이사(강정호, 이병선, 전은희, 남준경, 노영설, 김명란, 이기자, 신성애, 윤정임, 이선영) 등 운영진을 포함해 총 16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인 부산사생회는 한국미술협회 산하단체로서 미술협회 회원인 전문 작가들과 아외 사생에 뜻을 두고 있는 취미 작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에 관심 있는 20세 이상의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아외 스케치에 동참 할 수 있다.

아외 스케치에 참여한 회원들은 전국 각지를 다니며 아름다운 현장 그대로의 모습을 묘사하거나 이에 그치지 않고 그림을 그리는 순간 느끼는 사물의 형태나 풍광에 대한 개개인의 감수성을 다양한 매체로 화폭에 담아내고 있다. 그 결과물은 매년 정기전을 열어 발표함으로써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등 함께 발전해 나갈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 1회 소품전 및 기금전을 열어 본 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금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산사생회 운영을 맡고 있는 유선경 회장은 "현재 97% 이상이 미술협회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술 문화의 다변화와 확장을 위해 젊은 신진작가들의 영입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올해 정기전은 동아대 석당미술관에서 개최해, 기존 10회 이내의 작품보다 좀 더 큰 사이즈의 작품들을 전시할 계획이다"고 전하며, 올해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컬렉터 집중분석

- 열 다섯번째 이야기



김성현
학술평론분과 회장

이 코너에서는 미협회원들의 작품 컨셉 연구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미술사에 남게 된 위대한 예술가들의 개념과 관련된 자료들을 소개한다. 그리고 소개되는 이러한 자료들을 필자와 함께 공부하는 컬렉터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음을 밝힌다.

“항구의 하늘은 방송이 끝난 텔레비전 색이었다.”

"The sky above the port was the color of television, tuned to a dead channel." - 「뉴로맨서」의 첫 문장



좌)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한 윌리엄 깁슨(1948년~) 우) 「뉴로맨서」/윌리엄 깁슨 저/김창규 옮김/황금가지

21세기와 이후의 세계관을 알려면, 이 책이 던진 메시지를 이해해야 한다.

필자는 2022년 10월호 글에서, '매트릭스'의 세계관을 철학적으로 해석한 슬라보예 지젝을 소개하면서, '시대를 앞서가는 작가는 무엇을 받아들이는가?', 'MZ세대와 미래를 알려면 <매트릭스>의 세계관을 알아야 한다.'라는 부제를 사용했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우리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그리고 확장현실(XR)의 세계에 살고 있다. 그 세계관의 발전 속도는 평범한 일반인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다. 가히 증폭이 아니라 폭주라고도 할 수 있는 빠르기로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21세기와 다음 세대를 가능하려면 (이미 이 분야의 고전이 되었지만), 위에 소개한 윌리엄 깁슨의 「뉴로맨서」를 꼭 찾아보기 바란다. 다 읽지는 않더라도 그 앞부분 몇 페이지라도 들여 다 보기를 강추한다. 이 책은 1980년대 말부터 이어지는 인류의 세계관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는데, 현재 양산되고 있는 모든 SF 관련 문학들과 이미지들에도 그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멀티버스 너머 메타버스, 블록체인 너머 NFT의 세계로

윌리엄 깁슨은 미국계 캐나다인 SF 소설 작가로, '사이버 스페이스(Cyber Space)'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한 인물이다. 그의 데뷔소설 「뉴로맨서, Neuromancer」는 1984년에 출판되었으며, 가상현실과 사이버펑크 등의 개념을 소개하고 뉴욕과 도쿄를 배경으로 한 사이버 세계의 해커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소설은 사이버문화의 출현과 인터넷의 등장 등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디지털 시대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다.

「뉴로맨서」는, 사이버펑크 장르의 기념비적 작품인데, 사이버펑크는 인공적인 신경조직을 뜻하는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와 기존 사회에 반항하는 비속어를 낱말

하는 집단을 상징하는 펑크(punk)가 합쳐진 합성어로, 이 책의 출간 이후 일반화됐다. 그리고 이 책은, 미래의 첨단공학뿐만 아니라 디자인, 문화인류학 등 수많은 영역에 파급 효과를 미쳤다는 점에서 가히 혁명적인 소설로 평가받고 있다. 윌리엄 깁슨은 이 소설 한 편으로 휴고상, 네블라 상, 필립K 상 등 SF계의 주요 상을 모두 석권했으며 과학소설의 거장으로 영원히 기억되고 있다.

「뉴로맨서」가 전통적인 미술의 재료와 세계관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시대를 앞서가는 예술가들의 작품세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고 여겨지는데, 그들의 작품 세계를 구현하는 새로운 재료와 매체로서, 컴퓨터와 관련 디지털 기술과 이미지를 도입하는 자극이 되었다고 인정받고 있다. 사이버스페이스를 예지한 윌리엄 깁슨의 이러한 세계관은, 현대미술 작가들에게 사이버펑크 등의 요소들을 활용한 컴퓨터 그래픽, 가상·증강·확장현실...등의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 소설에서 윌리엄 깁슨은, 가상공간을 시각적인 이미지로 최초로 형상화하는데, SF영화들에서 자주 접하는 끝없이 무한으로 이어지는 격자(matrix) 이미지와 구체로 형상화되어 매끈한 표면을 갖고 있는 AI 이미지, 세기말적인 분위기의 펑크한 이미지... 등이다. 이러한 그의 시각적으로 구체화 된 가상공간이라는 아이디어는, 사이버펑크 장르가 문학 너머인 영화와 만화, 애니메이션 그리고 미술의 미디어 아트와 그 이후...등의 분야로 확대 파급되는 마스터피스(masterpiece)가 되었다.

우리의 시대는 이제 윌리엄 깁슨의 세계관을 추월하여, 멀티디멘션(Multi Dimension)과 멀티버스(multiverse)·메타버스(metaverse), 그리고 블록체인 너머 NFT의 세계로 어지러울 정도로 급변해왔다. 미술계에도 백남준의 비디오아트 이후 컴퓨터를 활용한 미디어아트는 인터랙티브(interactive)아트 시대를 열었고, 이미지의 역사에서 이미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의 시대는 어떤 괴짜 예술가가,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타고 넘어 어떤 작품을 보여줄지, 예의주시하며 어지럼증을 견뎌내며 버텨야 한다.



미야오 사오쑤, <마이크로코스>

상, 필립K 상 등 SF계의 주요 상을 모두 석권했으며 과학소설의 거장으로

문화공간

학술평론분과위원 진수아

소극장 '용천(龍天)지탈', 라이브 펍 '노가다(老歌多)'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해

한 바퀴 산책하고 싶은 봄, 차가 없는 사람들도 두 배로 행복한 계절이다. 봄이 다가올수록 외출 루틴이 다양해진다. 온갖 꽃들이 하루가 다르게 화려한 꽃세상을 만들고 있다. 놀랍게도 이때는 기분마저 흥겨워지는데, 그 이유가 한결 부드러운 바람과 주변 꽃들의 변신 때문인지도 모른다. 봄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만큼 더 애뜻하고 소중한 느낌이 난다.

오늘은 이런 계절에 더 반가운 복합문화공간 '문화골목'을 소개한다. 도시가 발달하면서 거리는 반듯한 직선으로 변해가고, 좁고 낡은 골목의 자취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럴수록 골목에 대한 향수를 되새기며 일부러 골목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문화골목'은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건축사 최윤식 대표가 2007년에 대연동 대학가의 여러 주택을 사들여 골목 풍경과 건물들을 유지하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였다. 부산 남구에는 세계 평화와 자유 수호의 의미가 깃든 UN 평화공원, UN 기념공원, 부산예술회관, 부산시립박물관, 부산문화회관, 부산방송총국, 대학로와 문화예술공간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도 '문화골목'은 대형문화공간이 아니면 만나보기 힘든 건축·음악·미술·연극·인문학·음식 등이 어우러진 특별한 공간이다.

'문화골목'을 살펴보면, 2층으로 올라가는 길에 녹슨 고물 자전거가 걸려 있다. 한 자리에 몇 년째 지키고 있다 보니 이제는 '문화골목'의 상징처럼 보인다. 고개를 드니 멋진 한자체로 쓰인 '龍天' 간판이 눈에 들어온다. 쾌적하고 정겨운 알찬 '용천지탈' 소극장이다. 80석에 이르는 객석이 마련되어 있고, 하늘로 솟구치려는 용의 몸짓처럼 그런 연극을 하고 싶어 한다. 무대와 객석의 거리가 가



소극장 '용천지탈'.

골목의 향수 부르는 복합문화공간 '文化 골목'



골목 중심에 우뚝 솟은 종탑(왼쪽)과 복합문화공간 '문화골목' 바람골 입구.

까워서 좋았고, 배우들의 숨소리까지 들릴 것 같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개관 공연부터 현재까지 자체 기획 없이, 연극 전용 초청 및 대관 공연으로 모든 세대를 아우르며 공연을 선보이는 곳이다. '龍天(용천)' 소극장 외에도 작가들의 전시회가 열리는 '골목 갤러리', LP 음반으로 신청곡과 함께 생맥주를 즐길 수 있는 음악과 여유가 함께하는 라이브 펍(pub) '노가다(老歌多)', 열린 공간에서 와인과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다반(茶伴)'도 있다. 중국요리 전문점 '상하이 1978', 인문학 북카페 '해련도방', 한식 주점 '술적십', 작업실과 사무실 그리고 서점 '당신의 책갈피'도 보



라이브 펍(pub) '노가다(老歌多)'.

인다. 0과 1로 이루어진 깜깜한 디지털 세상에서 등대처럼 빛나는 책방은 존재만으로 위안이 된다. 건너편 3층 옥상에는 공연을 위해 내려온 배우들이 머무는 깔끔한 게스트 하우스 '길손'이 있다. '길손'으로 향하는 계단이 특이하게 직선이 아닌 레이스 모양이다. 이런 레이스 계단은 예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앞에는 큰 종탑이 있는데 '문화골목' 주변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다. 우뚝 솟은 종탑이 이 골목의 중심을 잡아주면서 시간의 흔적을 대변하고 있다. 종탑 주위에는 노란 개나리꽃이 무더기로 피어 있고,

조그마한 봄꽃들이 소담하게 피어 정겨움을 더한다. 골목에서는 철물점 같은 분위기의 출입문과 쌓여있는 기왓장, 여기저기 널려 있는 건축자재들도 멋스러운 전시품이다. 오래된 포스터마저 추억의 한 조각이다. 동서남북 어느 곳이든 뚫려 있는 입구는 소통을 생각하는 건축사의 의지가 엿보인다. 골목을 쪽 들어 서면 건물과 건물 그사이의 틈은 길이 되고 연결 고리가 되고 공간이 된다. 한참을 구경하다 보면 마치 미로같이 느껴진다. 이런 독특한 분위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찾는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친환경 건축의 의도가 느껴지며 섬세하게 꾸며진 공간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이곳에서는 늘 음악이 흐르고 연극이 펼쳐지며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최윤식 건축사는 여태 손을 놓지 못하는 일이 건축과 그림이다. 건축업을 하다 보니 사라진 건축물을 그리기 시작했고 <부산일보>에 "사라진 근대건축, 잊힌 근대건축"이란 제목으로 연재도 했다. 그리고 책도 출간했는데 <부산 근대건축 스케치, 사라진 건축, 잊힌 거리, 2020>을 보면서 대단한 펜화 실력자임을 확인했다. 스케치뿐만 아니라 음악과 연극 등 예술 분야에 두루 섭렵해 있다. '문화골목'을 만들 때는 도심 재생 혹은 리모델링이란 용어가 생소하던 때였다. 2008년에 폐 건축 자재를 재활용해 앞으로 부산이 지향해야 할 도시재생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부산다운 건축상' 대상을 받았다. 부산 토박이인 건축사의 열정이 버무려진 결과이다. 이 모든 공간은 주택이 하나로 연결된 곳이기 때문에 출입구도 네 개다. 작은 골목을 통과하게 되면 출입구에는 재미난 문패가 걸려 있다. '문화골목'을 만든 건축사의 은근한 자부심이 묻어나는 '골목대장 최윤식'의 자개(mother-of-pearl) 문패다. 세상이 바라는 성공이 아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묵묵히 한길을 걸어온 '골목대장'을 보면서 참으로 특별한 분이구나 싶다.

이런 틈은 길이 되고 연결 고리가 되고 공간이 된다. 한참을 구경하다 보면 마치 미로같이 느껴진다. 이런 독특한 분위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찾는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친환경 건축의 의도가 느껴지며 섬세하게 꾸며진 공간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이곳에서는 늘 음악이 흐르고 연극이 펼쳐지며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끝으로, 그의 건축 철학은 무조건 부수고

새 건물을 짓는 것보다 리모델링과 인테리어 디자인 등 도심 재생 쪽에 집중한다고 한다. '문화골목'을 만든 동기는 "오래 묵은 숙제라고 해야 할지, 건축하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건축공간을 만들고 싶어 한다. 일반인들이 자기 집을 소유하고 싶은 것처럼 말이다. 어찌 보면 건축하는 사람으로서의 사명감 같은 것"이라고 했다. 향후 '문화골목'에 바라는 것은 독립영화관 확보도 중장기적 과제이다. 인문학적 즐거움을 더하는 책방과 젊은 세대와 어르신들이 어울려 책 읽기와 여가를 즐기는 도시형 문화공간 그리고 주차장 문제가 있다고 한다.

2023년은 '문화골목'의 아름다움을 알리고자 시작한 일이 15년이 지났다. 10년이면 변한다는 강산이 바뀌었고, 지난날을 돌아보



서점 '당신의 책갈피'.

면 잘한 일보다는 부족한 것이 더 많았다고 하지만 20년, 30년 후에는 더 멋진 '문화골목'이 되기까지 뚜벅뚜벅 나아가려 한다. '문화골목'은 잠깐 스치는 곳으로 생각하기보다 반나절 이상 여유를 가지고 찾기를 권한다. 가능하다면 자리를 벗어나 천천히 걷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보는 것도 좋다. 연극이든 커피든 땅거미 내려앉은 후부터 막걸리에 맥주, 소주까지 골목을 축축하게 적셔볼 수 있다. 달콤한 음악과 함께 '문화골목'의 밤은 깊고도 길다. 이번 주말엔 인생 사진 말고 인생곡을 만나러 '문화골목'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원래 있다가 없으면 별생각 없던 것도 그리워지기 마련이다. 사랑받는 티가 듬뿍 나는 '노가다(老歌多)'에선 머무르기만 해도 힐링이 될 것 같다.

바람골 입구 녹슨 철간판에는 이런 글이 적혀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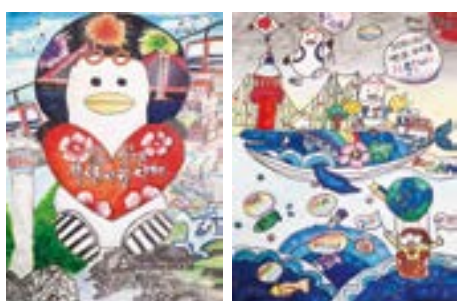
골목 안에 / 공연도 보고 / 그림도 있고 / 술 마시면 / 노래도 하네 / 바람 한 자락에 / 커피 와인 음악...오늘은 오랜만에 나 자신에게 멋진 선물을 건네준 기분이다.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19번길 43-1 / 전화: 051-635-4316 / 블로그 <http://golmok58/PW4318>

제11회 한·중·일 아동우호 그림작품 공모전 개최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응원
출품작 1,163점 중 100점 선발해
창의력 넘치는 다양한 작품 뽐내

2023년 '제11회 한·중·일 아동우호 그림작품 공모전'이 열려 부산지역 유치부, 초등부 포함 총 1,163명이 출품해 뜨거운 열기를 전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응원'과 '미래의 도시 부산을 주제로, 크레파스화에서부터 수채화, 파스



초등 고학년 금상(이준혁) 초등 저학년 금상(조아민).

텔화 작품까지 개성과 창의력이 넘치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작품들로 실력을 뽐냈다.

부산광역시와 재)부산국제교류재단이 주최하고 사)부산미술협회가 주관하는 '한·중·일 아동우호 그림작품 공모전'은 독창성, 표현력, 완성도를 중심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5명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 색을 얼마나 다양하게 사용하였는가? 스토리 구성은 어떠한가? 어른의 도움 없이 어린이가 직접 끝까지 완성하였는가? 주제가 알맞게 표현되었는가? 를 기준으로 금상 3점, 은상 3점, 동상 3점, 입선 91점으로 총 100점의 입상작을 선발했다. 특히, 미래 도시 부산에서 2030 세계박람회가 개최되기를 염원하는 어린이들의 상상력이 심사에 크

게 반영되었다. 시상식은 5월 20일 영화의 전당에서 '제15회 세계인과 함께하는 어울마당'과 연계해 열리고, 한·중·일 3개국 수상 작품의 부산 전시는 5월 중에 개최하고 8월 말경에 상하이에서 줌(Zoom)을 통해 온라인 개막식이 열릴 예정이다. 한국, 중국, 일본은 세계의 다른 지역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독자적인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아동그림 공모전을 통해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들의 창작 활동을 독려해 3개국의 문화예술 교류와 우호의 장을 마련하고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칼럼

나의 제주 여행 일지

정인성 부산미술협회 감사

제주를 다녀와서 캐러멜 마키아토처럼 달콤한 기억을 꺼냈다. 그동안 제주도 여행은 여러 번 있었지만, 이번 여행은 내가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곳들만 골라서 갔다. 첫날 김택화 미술관과 국립제주박물관을 관람 했고 다음 날은 이월중 미술관과 본태 박물관, 그리고 아르떼 뮤지엄을 관람했다. 김택화는 제주 출신의 서양화가다. 제주의 토속적인 풍광과 삶을 그만의 독특한 표현법으로 기록하듯 작품화했다. 모던한 외모의 미술관은 매우 소박한 느낌을 주었다. 비가 내릴 듯 말 듯 한 날씨 탓에 겨울을 견뎠은 마늘밭의 짙은 초록색과 회색빛 미술관 건물은 묘한 대조를 보였다. 제주도는 어느 곳에서나 내려다보면 바다가 보인다. 바다와 하늘 그리고 풍상에 시달린 소나무 몇 그루가 검은 돌담과 함께 캔버스를 빠져 나온 듯했다. 이는 화가의 삶이 제주의 풍광 속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관람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아직 겨울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대지 위에 초록의 생명이 봄을 준비하고 있었다.

백자 찻잔 형태라고 한다. 우리가 도착하니 입구에는 때맞춰 흥매화 한 그루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전시장에 들자 그 흥매화가 작품 속에서 반겼다. 그는 동양화를 전공했다. 그러나 기존의 한국화가 갖는 한계에서



월중미술관 앞에서.

벗어나 수묵채색 작업의 현대화를 추구했다고 한다. 전시장 안 어디에도 이분이 한국화를 전공했다는 느낌을 찾을 수 없었다. 자세히 관찰해보면 한지를 여러 겹 덧대고 종이 죽을 입혀 그 위에 아크릴로 그림을 그린 것을 알 수 있었다. 주로 꽃과 새, 노루, 강아지, 물고기와 사람을 주제로 한 그림이다. 분홍이나 연두 파랑 등 파스텔 색조의 색감들로 해학적 요소를 더하여 동화처럼 그렸다.

19금 전시장에 걸려있는 춘화 작품도 쓸쓸한 구경거리였다. 그

는 회화뿐 아니라 판화, 도자기, 조각 등 조형적 언어로 구사한 작품들도 많았다. 또한, 재료에 대한 다양한 시도를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시장 옥상 정원은 설치된 조각 작품과 더불어 내려다보이는 조망권도 일품이었다. 설섬과 문섬, 새섬이 한눈에 들어오는 제주의 남쪽 바다야말로 월중미술관의 정점을 찍었다. 나는 눈을 감고 팔을 벌려 그 바다를 마음에 꼭꼭 눌러 담았다. 그런데 관광버스에 올라 꺼내 보니 전시장 입구 현관문 앞에서 울고 있던 맑고 영롱한 풍경 소리까지 덩이로 딸려 왔다.

본태 박물관은 잔뜩 흐린 날씨 탓인지 아니면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노출 콘크리트 건물의 단순함 때문인지 첫인상은 적막함이었다. 5개의 전시관을 우리는 조를 나누어 관람했다. 3개의 관람실은 우리나라 전통 공예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현대식 건물이 풍기는 느낌과 소장품들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어색해 보였다. 그러나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 작품과 무한 거울방이 있는 제3 전시관이나, 건축가의 집과 꼭 같이 설계되었으며 현대미술품을 전시한 제2 전시관은 전

시된 작품이 불만했다. 그리고 미로 같은 복도를 지나 마지막 다다른 곳에 명상의 방이 있었다. 그 방을 끝으로 되돌아 나오는 구조였다. 본태 카페를 지나 잔디밭과 넓은 연못이 있는 정원으로 나오니 한옥 기와 담장을 끼고 같이 나왔다. 그 길과 동행하는 수변 공간은 걷는 자의 마음을 사색의 길로 인도한다. 고요한 수면에 반영된 하늘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무념무상이다. 넓은 잔디밭은 가부좌를 틀고 앉아 눈을 감고 명상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고 싶어지는 공간이었다. 나는 수면 같은 고요를 관광의 이름으로 밟고 지나왔다.

일반적으로 제주 여행이라 하면 제주도만의 자연 풍광을 즐기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한 번쯤 가봐야 할 곳이기도 하나 뒤로 밀리게 된다. 이번 여행은 나의 묵은 숙제를 끝낸 날이었다. 우리는 여



테우 해변에서.

행의 마지막 날 공항 부근에 자리한 이호테우해변을 찾아가는 도중 하늘과 바다가 무한대로 펼쳐 보이는 커피숍에 들렀다. 나는 여독을 풀기 위해 달콤한 캐러멜 마키아토 한 잔을 시켰다. 혀끝에 감도는 단맛은 온몸의 피로를 잊게 해주었다.

의자에 기대어 창밖에 그림처럼 펼쳐진 제주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군더더기 하나 없는 자유를 품은 바다는 바라보는 사람의 가슴에서 아름답거나 지독하게 고독해지기도 했다. 나는 씩씩수록 더 깊어지는 고독을 기억 속에 곱게 담았다. 그렇게 짧지만, 긴 시간이 흘러간 듯한 순간이었다. 인생 사진의 명소로 잘 알려진 말 모양의 등대를 지나 바다보다 더 넓은 하늘을 품은 테우 해변에 도착하였다. 활처럼 휘어진 해변에서 내 몸을 관통하는 바람을 맞으며 보헤미안처럼 걸었다. 걷다가 해변 풍광이 탐이 나서 종이 위에도 슬쩍 그려 담았다. 현장 스케치는 오감으로 느껴지는 그때의 감정을 고스란히 기억할 수가 있어 좋다. 그 매력이 나를 여행 속으로 젖어 들게 한다.

이월중 미술관은 멀리서 보면

Close Up 21

햇빛 쏟아지다.



수채화가 임영진



물의 정원 23-III_61 X 90cm, oil on canvas, 2023.



햇빛 쏟아지다 III_145 x 97cm, oil on canvas.



햇빛 쏟아지다 23-II_73 X 106cm, oil on canvas, 2023.

작가는 짙한 햇빛이 비치는 바닷속을 좋아한다. 일상에서 지치고 힘들 때면 작가는 끝없이 펼쳐지는 바다를 찾는다. 태양이 내리쬐는 바다는 고요한 힐링의 공간이라 생각한다. 따스한 빛이 바닷속은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편안해지는 것 같다.

작가는 캔버스 화면에 물방울 같은 유기적 형태의 유닛을 반복적으로 표현한다. 바다, 햇빛, 꽃과 같은 자연을 연상시키며 물방울 하나하나 작가의 붓질로 표현된다.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 낸 변화는 자연에서 느껴지는 생명력의 기운을 불어넣어 희망적인

밝은 화면을 구성한다. 그것은 일렁이는 바닷물과 햇빛 쏟아지는 밝은 바다 속을 표현한다.

작가는 햇빛 쏟아지는 바닷속의 풍경을 연결고리로 삼아 서정적인 색채로 풀어본다. 따스한 빛의 색채로 표현된 추상적인 느

낌을 힐링의 공간으로 담아내는 작업에 몰두한다.

머릿속까지 형형색색 빛깔들이 끝없이 펼쳐져 자유를 꿈꾸는 몽환적인 바다로 창조된다. 선과 면, 밝은 색채들이 어우러진 화면에 물방울들이 맺혀있다.

밝은 색채로 물속으로 들어오는 빛을 표현하고, 바닷속을 표현하기 위해 수채화처럼 물의 번짐과 물방울을 겹겹이 중첩시켜 구상이 아닌 서정적인 추상으로 표현한다.

짙한 햇빛이 온몸을 감싸주듯

따스한 빛깔들이 보이는 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이 힐링의 공간으로 재창조되기를 바라본다. 순간순간 찰나의 느낌과 즉흥적인 운동성을 가진 색채의 파도가 따스한 빛의 세상을 표현한다.

화려한 빛이 작가의 화폭에 힘차게 스며든다. 끝없이 펼쳐져 나아가 이 에너지는 보는 이들의 머릿속까지 침투하여 자유의 강력함을 꿈꾼다. 밝은 색채로 펼쳐진 자유와 힐링의 꿈은 좀 더 넓은 곳으로 향해 자유로워지고 싶은 우리 모두의 소망일지도 모르겠다.

햇빛이 바닷속에서 스며들면 밝고 희망적인 공간으로 창조된다. 스며든 따스한 빛이 온몸을 감싸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현대인들의 삶 속에는 저마다 웃음 뒤에 마음 한켠에 아픔들이 있다.

자신만의 상상을 바닷속에서 자유롭게 풀어 놓아보며 이리저

리 날아오르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황홀한 빛이 쏟아지는 힐링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 기억을 더듬어 보기를 바란다. 보는 이들로 하여금 느끼고 잔잔한 신비로운 바닷속 풍경을 느껴졌으면 한다.

작가는 캔버스 위에 색채들이 수채화처럼 번지듯이 스며들 때 힐링의 공간 속으로 빠져든다. 바라보는 이들도 작품을 바라보며 따스한 빛의 세상 속에서 숨 쉴 수 있도록 작가는 바라본다.

- 작가노트중

- 고신대학교 회화과 서양화전공 졸업
- 부산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서양화전공 수료
- 2009 제27회 대한민국미술대상전 '올해의작가상'
- 2012 제3회 미술과비평 대한민국선정작 공모 '선정작가상'
- 2018 한중일 우수작가특별전 '우수상'
- 2020 국제유수작가특별전 '종합대상'
- 2021 국제현대미술우수작가전 '추천작가 선정'
- 2023 부산 미술로 꿈을 꾸게하다 청년작가展 선정작가

세상에 던져진 존재에 대한 물음



조각가 정희욱

석조각 예술가로 평생을 살아온 정희욱의 개인전이 '관찰자를 부제'로 3월 14일에서 19일까지 금샘미술관 2전시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서는 정희욱 작가가 꾸준히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얼굴 연작과 더불어 평면 작품을 함께 전시해 조각가로서의 단일한 정체성을 넘어서는 실험정신을 드러냈다.

지난 '자소상' 연작에 이어 정희욱 작가는 자신의 세계를 돌아

는 재료에 자신만의 내면세계를 투여한다. 반구대암각화를 마주하면 거대한 에너지를 느낀다는 작가의 선조들의 종교적, 예술적 성취가 담긴 석불이나 산을 다니며 작품을 구상하고, 작업 재료인 거대한 돌덩이를 구하기 위해 전국을 찾아다닌다고 한다. 작가에게 물질로서의 돌은 자신의 정신과 관념을 반영한 매개체로써 존재하는 것이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얼굴상에 '자각상(自覺像)'이라는 이름을 붙여 자신의 작업과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자각상>은 단색으로 칠해진 대형 평면 캔버스 앞에 놓여 있다. 푸른 빛의 대형 캔버스는 우리가 놓여진 세계이며 그 앞에 바닥에 귀를 대고 누운 얼굴상은 내면의 세계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작가 자신의 모습인 듯하다.

이와 함께 작품 <관찰자의 시선>은 우리가 즉자(卽自), 대자(對自)적 존재를 넘어선 대타존재(對他存在)임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관찰자는 세상을 바라보는 작가 자신일 수도 있고 자신을 응시하는 타자일 수도 있다. 우리는 타자를



자각상_470×260×315mm, 대리석, 2022.



관찰자의시선_450×260×490mm, 대리석, 화강석, 2023.

응시하고 타자의 시선에 의해 응시되고 의식되는 존재이다. 대상들에 의해 응시되고 있음을 안다는 것은 내가 그들과 특정한 관계성 속에 놓여있음을 자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산 공예고, 부산대학교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을 수료한 정희욱 작가는 물질성을 넘어선 정신세계의 표출을 위해 입체, 설치, 평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차와 사람들의 이야기



한국화가 김만수

차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서를 이미지화한 한국화가 김만수의 '차와 사람들의 이야기'전이 3월 6일부터 11일까지 부평아트스페이스에서 열렸다.

오정 안봉규 선생의 문하에서 남화풍의 골격을 익히며 화업에 몸담아 온 어언 50여 년의 세월 동안 꾸준히 작업과 전시를 이어온 김만수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는 차와 관련된 선풍적 내용을 주제로 한 소품들 함께 한지 위에 이탈리아 분채와 일본 석채를 사용해 불교의 우주도(宇宙圖)인 만다라(曼荼羅)를 추상화한 작품 등 총 25점을 선보였다.

우리나라는 신라 시대 때부터 승려와 화랑들이 수행의 한 방법으로 차를 마셔왔다. 조선 시대에 선비들은 풍류의 도구로 차 생활을 이어왔고, 그 당시 일본 차인들의 주문으로 조선 도공이 소성(燒成)한 찻사발(다완, 茶碗)이 교역을 통해 일본으로 다량 유입되었다고 전해진다.



체휴魚屋_23×23cm, 닥지에 먹, 분채, 2023.

김만수 작가는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지금까지도 일본에서 사용되어지고 일본에서 국보나 중요 문화재로 남은 우리의 다완의 형상을 닥종이 위에 옮겨냈다. 그는 가루차(抹茶), 묽은 차(박차:博茶)나 짙은 차(농차:濃茶)의 색을 이용한 바탕 위에 다완의 형태를 실사(實寫)하고 배경에는 매화(梅花)나 한란(寒蘭)을 그려 넣는 등 절제된 채색과 선, 색면의 구성으로 작가 자신만의 독특한 조형 세계를 드러냈다.

아름다운 자연의 순간을 붙잡다



서양화가 강병란

서양화가 강병란의 개인전이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금련산갤러리에서 열렸다. '자연 속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는 지나치는 자연 속 아름다운 순간들을 화



장검_73×61cm_oil on canvas.

폭에 담아내 많은 관람객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카메라를 통해 바라본 풍경의 사실적 묘사를 즐기는 강병란 작가는 계절마다 연출되는 색상과 형상들의 순간을 영원히 붙잡고자 자연의 원초적 아름다움을 유화 물감을 사용해 상세히 표현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눈을 통해 본 자연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그대로 담아내기 위해 빛에 의한 순간적 색의 변화를 탐구해 왔다. 이번 전시에 소개된 4호에서부터 100호까지 다양한 사이즈의 작품 총 65점은 자연에 대한 그의 애정 어린 시선과 빛과 색에 대한 그만의 노력이 담겨있다.

평범한 주부로 50대 초반에 들면서 빈집 증후군으로 겪었던 힘든 시기를 그림을 그리

면서 자연과 공감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극복해 왔다는 작가는 "태양이 꽃에 색을 입히듯 저의 작업은 제 인생에 찬란한 색채를 부여한다. 그냥 단순히 그림 그리기가 좋아서 시작하였지만 25년 이상을 꾸준히 그림을 그리면서 나의 마음이 많이 healing 되는 것을 깨달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건강이 허락하는 그날까지 꾸준히 그림을 그리고 싶다"며 작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자연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담다



수채화가 박미애

박미애 작가의 개인전이 이월갤러리 센텀점에서 3월 20일부터 30일까지 연산점에서 4월 3일부터 28일까지 연이어 열렸다. 'Heart'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는 아크릴화와 수채화 작품 총 20점을 전시해 작가의 따뜻한 감성을 전했다. 이번 전시에는 작가 자신의 삶과 살아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들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10호부터 100호까지 다채로운 작품들을 선보였다.

작가는 눈에 들어오는 장면들, 세상에서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들, 나무들, 봄바람, 공기, 가족, 친구 등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고 화합하여 행복에 이른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간의 편의를 위해 파괴되고 있는 자연의 모습을 보며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랑'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인간과 자연에 대한 자신만



heart_100호, acrylic on canvas.

의 사유를 드러내기 위해 박미애 작가는 자연물인 나무 형상에 자신의 내면 세계를 투영해 낸다. 한편, 작업 시 늘 음악과 함께하며 음악에 자신의 마음과 몸을 맡기고 그 순간의 감성에 따라 붓질을 한다는 작가는 이후 긴 시간 동안 캔버스와 마주하며 감성과 붓질의 조화를 이끌어내 마무리 작업을 한다. 그는 "작업하다 우연히 만나는 마음을 움직이는 형상이 필연이 되기도 한다"며, "작업하는 내내 행복감과 생동감에 빠져 무척 즐거웠다. 앞으로 작품에 더 전념해 내면의 모습을 더욱 드러내고 저의 존재와 자아를 찾아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시간의 결, 표면의 결'



서양화가 이황영옥

이황영옥 작가의 여섯 번째 개인전 '시간의 결, 표면의 결'이 인사아트센터 부산 갤러리에서 열렸다.

지난 4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열린 이번 전시에는 '시간의 결'을 주제로 작가의 기억 속 어린 시절 이야기를 인물들의 얼굴을 통해 표현한 작품과 함께 '표면의 결'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전통 도자기의 형태와 색, 면을 질감을 이용해 표현한 정물 작품들을 전시해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시간이 흘러도 남아있는 어린 시절 기억 속 인물들의 이미지를 목판에 새겨놓은 평면 조각 작품은 현재 작가 자신의 정체성과 본성을 완성하게 하는 매개체이자 나를 지속하게 하는 관계성의 표현인 듯하다. 정물 작품에서 사물의 단순 형태에 물감을 말려가며 붓칠하기를 반복해 무거워진 물감의 두께는 대상의 본질과 색을 탐구하고자 한 작가의 치열했던 작업의 흔적이라고 할 수



질감 (texture I)_75 x 75cm, oil on canvas, 2023.

있었다. '결'은 성품의 바탕이나 상태라는 의미와 함께 나무, 돌, 살갗 따위에서 조직의 굳고 무른 부분이 모여 일정하게 켜를 지으면서 짜인 바탕의 상태나 무늬라는 사전적 의미처럼 시간성을 내포한다.

어린 시절의 기억, 켜켜이 쌓은 물감들 모두 지나온 세월을 반영한 그의 삶에 대한 태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이에 이황영옥 작가는 "결이란 마음의 결과 속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하다"고 말하며, "마음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들의 본질을 탐구하고 사물의 형태를 빌어 색과 질감을 쌓아가는 작업 과정을 즐기고 싶다"고 덧붙였다.

길동인회 60주년 기획전

제62회 길동인 정기전
‘길동인의 뿌리를 찾아서’
선배 원로작가 20인 초대

길동인의 62번째 정기전이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부산시청 갤러리 2,3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정기전에는 현재 길동인 회원 31인과 부산사범학교, 부산사범대학, 부산교

육대학교 선배 작가 20인을 초대하여 선후배 간의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마련한다.

길동인은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부산교육대학교의 전신인 부산사범학교와 부산사범대학 출신 작가 강선보, 김문수, 김부웅, 김용달, 박대련, 송영명, 심재중, 윤종철, 정수경, 정태영, 주경업(11인)과 길동인회에 몸담은 바 있는 부산교육대

학교 출신 9인의 작가를 초대하는 특별전을 기획했다.

길동인은 1963년 故 문순상 외 10인의 부산교육대학교 졸업생이 주축이 되어 부산공보관에서의 창립전을 시작으로 부산 미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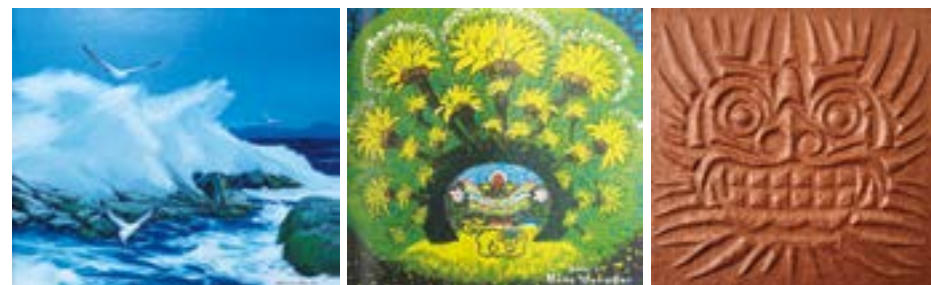
1960년대 미술 창작활동을 펼치기 어려웠던 여건 속에서도 전통적인 형식의 순수 미술 활동의 길을 걸어온 길동인은 미술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며 후학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길동인 회원들은 교직에 재직하면서도 작가로서 서양화와 한국화를 중심으로 전시 활동을 이어왔고 현재는 회원 대부분이 퇴직하여 전업 작가로 창작 활동에 전념하고



강선보_상황 (Situation) _53 정태영_천상의 풍경 _45.5 김부웅_53.0×65.1cm, ×73cm, oil on canvas. × 53.0cm, oil on canvas.



윤종철_자갈치여인들 _116.8 X 박대련_념(念)-화성을 가다 _53.0 심재중_남항풍경 _72.7×53.0cm, oil on canvas. × 45.5cm, mixed media on canvas. on canvas, 2014.



정수경_노도(성난 파도) _72.7 × 60.6 김문수_태양을 품은 고향이야기 _53 × 45.5cm, 김용달_황동도개비 DC-034 _55 × 55cm.

있다. 부산사범학교와 부산사범대학은 1962년 통합하여 부산대학교 병설 교육대학으로 개편했다가 1663년 부산대학교에서 분리하여 부산교육대학으로 개편하고, 1981년 대학으로 승격해 1993년 부산교육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했다. 이에 길동인은 부산 화단에서 존경받고 있는 부산사범대학과 부산사범학교 출신 원로작가들이 길동인회의 뿌리라고 보고 이들의 작품세계와 정신을 본받아 길동인이 한층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길동인 안태준 회장은 “이번 60주년 전시회를 기념하기 위해 유명한 선배님들을 초대하여 길동인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고 말하며, “이분들은 길동인의 자랑이고 든든한 울

타리다. 선배님들과 유대 관계를 끈 끈이 이어가 더욱 성장하는 미술 단체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전해 부산 미술인들의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경업_색즉시공 공즉시색_56×27cm.



송영명_추념23 _53.0×40.9cm, 아크릴, 2023.

2023 부산미술협회 수채화분과 ‘100 + 100인의 동행’전



부산미술협회 수채화분과회원 단체사진.

봄소식과 함께 부산미술협회 수채화분과 정기전이 열려 물빛 수채화의 매력을 가감 없이 펼쳤다. 부

산과 서울에서 각각 치러진 이번 정기전은 수채화 작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축제를 방불케 했다. 지난 3월 13일

부터 18일까지 부산시청 전시실에 1부 전시에 이어 2부 전시는 3월 22일부터 4월 3일까지 인사아트

센터 부산갤러리에서 2주간 열려 부산 수채화의 위상을 전국에 알리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로 17회를 맞는 수채화분과전은 <100+100인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열려 부산 수채화의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손잡고 함께 걸어가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전시에는 135명의 수채화분과 회원 중 1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여 1·2부 각 200여 점의 풍경, 정물,

비구상 등 수채화 특유의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작품들을 출품해 관람객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부산미술협회 수채화분과는 매년 회원과 비회원의 동행전을 통해 부산 수채화 작가 간의 화합을 이끌어내고 비회원의 활동 영역을 넓힐 기회를 제공하는데 힘쓰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회원의 참여율이 높아지는 등 화합된 모습을 유지하는 데는 전시를 기획하는 운영진의 노력도 한몫하고 있다. 수채화분과 조귀선 회장은 “수채

화분과 회원들의 활동이 해를 거듭할수록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고 말하며, “각자의 개성과 감성을 작품 속에 녹여내는 수준 높은 작품들을 탄생시키기 위해 모두들 열심히 작업에 매진하고 있으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타 장르에 비해 현대미술에서 한발 물러나 있던 수채화가 적극적인 창작 활동을 통해 재료의 특성을 넘어 도전을 이어가,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 나갈 길 기대해본다.

제18회 부산환경미술협회 정기전



임윤영_달과 고목 _53.0×53.0cm, oil on canvas.

의 2023년 정기전 <환경과 삶> 전시 4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 부산시청 2·3전시실에서 열렸다.

환경을 훼손하는 인간의 삶 속에서 그 원인과 해결점을 찾아보고 미술을 통해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열린 이번 전시에는 부산환경미술협회 200여 명의 회원 중 98인이 참여하여 서양화, 한국화, 수채화, 조각, 공예, 디자

인 등 다양한 장르의 개성 넘치는 작품들을 선보였다.

부산환경미술협회는 2003년 부산의 미술인들이 중심이 되어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술 작품을 통해 환경 보호를 홍보하기 위해 설립했다. 매년 회원들의 정기전뿐만 아니라, 2005년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열린 ‘제1회 을숙도 어린이 사생 대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5회에 걸쳐 어린이 사생 대회를 개최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미술 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부산환경미술협회 정인성 회장은 “인간의 삶이 편리해질수록 환경은 오염되고 파괴되고 있다. 환경문제는 현시대의 가장 큰 화두다”고 말하며, “본회가 주창하는 취지는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운동처럼 작은 것들을 실천하는 일이다. 앞으로 더 많은 미술인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덧붙여 환경운동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제49회 부산여류전 ‘청년작가를 만나다’



권소연_일상의은유 210629 _90.9 × 60.0cm, mixed media on canvas.

부산 미술 문화의 창조적 발전을 이끌고 있는 부산여류전의 49회 정기전이 4월 24일부터 29일까지 부산시청 전시실에서 열려 시민들에게 특별한 감성을 전했다.

이번 전시는 새 시대를 열어갈 청년 작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회원 권소연, 김령희, 김영주, 김화주, 문현경, 박대련, 박선민, 박선희, 서이희, 안화신, 양형미, 윤순호, 이상순, 이숙희, 정주야, 정복희, 조순선, 최말에 뿐 아니라, 부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김미소, 박민경, 박지현 등 청년 작가

10명을 초대해 총 28점을 선보이며 세대 간 경계를 넘어 서로의 작품 세계를 교류하는 장을 펼쳤다. 유화, 동양화, 판화 등 현대미술의 다양한 양식과 기법을 새로운 조형 언어로 구현해 내며 여류화가 특유의 섬세한 감성을 담아냈다.

부산여류전 권소연 회장은 “이번 전시는 청년 작가들과 예술적 영감을 주고받으며 창작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말하며, “관객들이 바쁘고 힘든 삶 속에서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고, 즐겁고 설레는 경험을 통해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자신의 감정을 느껴 작가와 관객이 서로 교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확장성을 도모하며 지역 사회에 말을 건네고 있는 부산여류전은 1975년 부산 최초로 창립한 여성 미술 단체이며 미술의 불모지였던 부산에서 미술을 전공한 여성 작가들로 구성되어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최향자 '삶의 길 위에서'
3.1~3.31 오션갤러리 경주



단색으로 바탕칠한 캔버스를 수많은 선으로 채워, 광활한 우주에서 '나'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한다. 무수한 선들의 교차와 중첩은 우주 만물의 유기적 연결을, 그 사이에 발생하는 간극은 인간 간의 관계성을 의미한다. 이번 전시는 잠시 머물다 가는 소중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 가야 하는지 묻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작가의 깊은 사유를 담아냈다.

정안용 개인전 '36.5°C'
3.2~4.1 아트스페이스 링크



무형의 연기 이미지를 이용해 인체를 표현한 정안용 작가의 전시. 조각을 전공하면서도 나타나고 사라지는 형태에 관심을 가져온 그는 향, 나무, 종이, 천 등 여러 재료를 직접 태워 짙은 연기 이미지를 수없이 중첩해 구체적 형상을 만들어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인체 중 특히 손에 집중하여 손이 닿았을 때 연기의 미세한 떨림이나 감정을 표현해 온기를 전했다.

제10회 부산민화제
3.6~3.11 부산시청 2·3전시실



부산민화협회는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아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내는 시간을 가졌다. '제5회 대한민국어린이민화전을' 경계 열린 이번 정기전에는 작가 52명, 어린이 55명이 참여하여 전통 민화 작품뿐만 아니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작품, 작가와 어린이의 책가도 공동작품 등 총 2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여 동시대에 부합하는 무한한 가능성을 엿볼 기회가 됐다.

박성희 수채화 개인전
3.7~3.12 금샘미술관



찬란하게 피어나는 꽃들의 시간을 잡고 싶은 마음으로 꽃 정물 및 자연의 풍경들을 그리며 삶의 위안을 받았다는 박성희 작가의 첫 번째 개인전. 이번 전시는 12년간 수채화를 배우면서 각종 공모전과 그룹전에 출품했던 작품들을 모아 발표하는 자리로, 번지기와 뿌리기, 소금 등을 이용하여 작업한 정통 수채화 총 80점을 선보였다.

변대용 'Slow Life-달빛 산책'
3.11~4.23 갤러리조이



위기에 처한 자연과 점점 설 자리를 잃어 가는 현대인의 이야기를 멸종 위기의 북극곰을 통해 풀어냈다. 작가는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의 모습을 빙하가 점점 사라져가는 상황 속의 북극곰에 투영해 위로와 위안을 건넸다. 이번 전시에서는 배경과 컬러를 적절히 배치 회화적으로 표현한 부조 작품도 선보였다.

강대진 '왕의 정원'
3.16~3.30 갤러리휴



'왕의 정원'이라는 부제로 소나무 숲을 신비로운 청색으로 표현한 강대진의 개인전이 열렸다. 작가는 정철과 지조, 장수를 상징하며 숲의 수호신처럼 자리를 지키는 소나무의 모습을 여러 겹의 물감으로 덧칠해 사실감 있게 표현했다. 오랜 세월 수많은 풍파를 견뎌내고 곳곳에 버티온 소나무 숲의 강인함과 신비로움이 전해진다.

손몽주 개인전 '그녀의 리니어 조각'
3.21~4.4 유진화랑



차갑고 견고한 금속 입체 조각과 따뜻한 컬러의 만남을 통해 부드럽고 가벼운 조각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설치미술가 손몽주의 전시. 작가는 상상과 현실을 믹싱하듯 컬러 조각과 미러와의 대비를 릴리프로 제작해 반복된 순간의 누적을 표현해냈다. 부분적으로 드러내는 금속조각은 삶의 보이지 않는 그 어딘가에 존재하는 경계선을 은유한다.

박정현 개인전
3.27~4.2 부산시청 1전시실



자연과 인물 등 다양한 주제로 꾸준히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박정현 작가의 5회 개인전. 이번 개인전에서는 붓과 나이프를 이용해 작업한 꽃, 자작나무, 연잎이 있는 자연 풍경과 소녀상 등의 최근작들과 함께 10여 년간 공모전에 입상한 100호 작품들을 모아 총 42점의 유화 작품을 선보여 부산 시민들의 마음에 위안을 전했다.

Bridge, 부산판화작가 초대전
3.31~4.6 갤러리 아트독



부산판화가협회는 갤러리아트독과 공동 기획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을 담아 부산판화작가 초대전을 개최했다. 전통 판화에서부터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현대 판화 작품을 선보여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동시에 지역 판화의 경계를 넘어 부산 판화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여 국내·외의 다양한 문화예술 교류를 위한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강연희 개인전 '그리다'
4.1~5.31 카페385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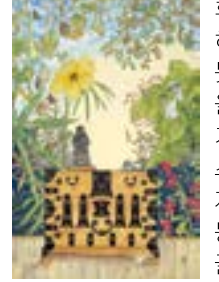
색과 면으로 공간에 대한 탐구를 이어오던 작가는 공백기를 지나 복잡한 일상 속 도시의 풍경이나 기하학적 형태의 건축물에 주목한다. 변형된 형태나 색을 통해 추상과 구상의 경계를 넘나들며 풍경에서 받은 서정적이고 추상적인 분위기를 표현했다. 또한, 기하학적 건물과 선인장 같은 이질적인 사물의 만남을 통해 관계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한다.

강상준 '내 반려동물이 그림 액자의 주인공이라면?'
4.4~5.1 갤러리보명



일러스트레이터 강상준의 초대 개인전. 현대인들의 삶에서 반려동물의 존재는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과 일상에서 겪는 수많은 추억에 대해 주목하고 감각적인 색과 독특한 화면 구성으로 자신만의 조형 언어를 구사해 냈다. 자신의 반려묘인 '알도'와 '라도'를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유쾌한 상상력으로 그려내 보는 이에게 따뜻한 미소를 자아내게 했다.

박현술 '행복한 시간이 준 선물'
4.4~4.9 금련산갤러리



화려함보다 소박함과 은은한 향기를 좋아하게 된 일흔둘의 자신을 발견하고 틈틈이 붓 가는 대로 그려두었던 창작 민화 47점을 전시해 지난 세월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작가는 순지, 메메이드지, 캠퍼스, 뿔과 나무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손자와 함께 보았던 동화책의 내용이나 찻잔 등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권세령 '욕망의 알레고리'
4.10~4.15 부평아트스페이스



채워지지 않은 수많은 결핍과 그로 인해 끊임없이 확장되는 욕망에 대한 사유를 담은 전시. 화려한 색의 조합과 드래핑 기법으로 채워진 배경, 화면에 등장하는 아지각이한 자연물 등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경쾌함을 자아낸다. 무한히 반복되는 경험의 파편들 속 감정적 결핍에 고립되지 않고 삶을 긍정하는 작가의 따뜻한 시선을 전했다.

한혜경 '아리랑'展
4.11~4.23 갤러리삼



공방에서 수업하는 섬유 아트 스타일을 알리기 위해 열린 서양화가 한혜경의 섬유공예 두 번째 전시. '나를 알게 되는 즐거움'이란 의미인 '아리랑展'이라는 부제로 열린 이번 전시는 섬유 아트와 회화를 접목하여 직접 지은 옷에 아크릴 푸어링 기법과 스텐실 기법으로 입체감 있게 표현해 자신만의 색을 표현해 보고자 했다.

제45회 부산수채화협회 정기전
4.17~4.22 부산시청 2·3전시실



'수채화의 확장'과 그 의미라는 부제로 열린 이번 정기전은 타 장르 작가 전존자, 안영찬, 이보순, 띠그란, 어코피언(러시아), 엠디 사비르 알리(인도), 이태훈, 김미소, 임예빈을 초대하여 그들의 수채화 작품을 함께 전시했다. 서양화가 7명으로 결성돼 현재 55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부산수채화협회는 수채화의 깊이와 다양성을 위해 매년 정기전을 이어오고 있다.

구윤근 '오늘의 심상표현전'
4.24~5.24 수정갤러리



한국화가 구윤근은 현대인의 각박한 삶 속에서 옛 고향의 향수를 찾아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노래했다. 5~7년에 한 번씩 개인전을 열어왔다는 작가는 水晶(수정) 갤러리 개관을 기념하여 실경과 심상의 풍경을 담은 작품 30여 점을 선보이며 자연이 좋아 늘 뒤돌아보는 삶을 살아가는 작가 자신의 모습을 화폭에 녹여냈다.

이도경 개인전
4.25~4.30 금련산갤러리



이도경 작가는 작업의 표현 대상과 창작의 소재를 주로 자연에서 찾으며 그에 대한 감흥을 회화적 이미지로 나타내고자 했다. 자유로운 선과 색으로 대상에 대한 작가의 내면세계를 독창적인 조형 요소로 구현해 강렬하게 표현하고자 한 이도경 작가는 창조적 미술 활동을 통해 새로운 미적 공간을 추구함으로써 예술적 교감을 이어가고자 한다.

제16회 김응기 개인전
4.26~5.16 갤러리 아트슌



서양화가 김응기가 2009년 개인전 '꽃에 대하여' 이후 오랜만에 개인전을 열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자태, 꽃의 표정에 대한 표현을 넘어 변화하는 자연에서 채집한 형상들을 이미지화하거나 재구성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이전과 달리, 사람·동물·문자·기호 등의 복합 이미지를 화면에 추가하여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작가의 관심이 증폭되었음을 보여준다.

전시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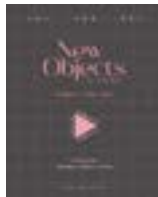
부산미술은 미술협회 회원님들과 미술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간입니다. 격월로 월초에 발간되는 부산미술은 회원님들의 귀중한 전시소식을 기다립니다. **발간 전월 15일 까지** 전시소식을 부산미술협으로 보내주시면 다음달 발간되는 소식지에 게재해 드립니다. [bfaa2015@hanmail.net : 전시명, 작가명(단체전일 경우 참여 작가명단), 전시기간, 갤러리명, 연락처, 작품 이미지(저화질 게재 불가/파일 제목 캡션 필수), 전시 주제 또는 작가의 한마디를 담은 1~2줄의 문장]



2022.6.21-2023.9.3
Re 새-새-정글
부산현대미술관 야외조각공원



2022.7.15-2023.5.7
모든 것은 서로를 만들어 나간다
부산시립미술관



3.6-5.7
New Objects-뉴 오브젝트
소울아트스페이스



3.14-5.18
다시 봄
갤러리 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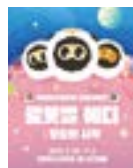
3.17-6.25
부산, 과거와 현재를 잇다
동구문화플랫폼 시민마당



3.28-8.20
별별 바다신
국립해양박물관



3.28-10.9
미술관에 피는 꽃
서면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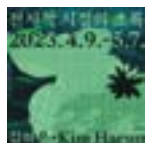
3.30-7.2
로봇별 에다-모험의 시작
국립부산과학관 1층 김진재홀



4.6-5.27
민지훈, 양나영 '초월된 위계를'
제이무브먼트 아트스페이스갤러리



4.6-8.6
영화의 기후-섬행성포스트콘택트존
부산현대미술관



4.9-5.7
김하은 '전자적시점의 초록'
영주맨션



4.19-12.20
2023 홍티아트센터 입주작가
릴레이 개인전 'Change of State'



4.20-5.30
최인수 '물질의 서사'
데이트갤러리



4.21-5.4
윤종철 회고전
미광화랑



4.29-5.3
이정희 '행복한 동행'
해운대문화회관 2전시실



5.1-5.13
이윤선 18회
개인전 씨니갤러리



5.2-5.21
2023부산미술로꿈꾸게하다 청년작가전
금련산갤러리



5.2-6.11
다섯 번째 계절 '낮선 행성'
UHF728 금정문화회관



5.7-5.14
윤영득 '서양화개인전'
부산시청 1전시실



5.8-5.13
제5회 금빛사상미술협회 정기전
부산시청 2,3전시실



5.15-6.3
향성전'불자창립전'
씨니갤러리



5.15-6.20
강바다 'Camellia & Love'
이월갤러리센텀점, 연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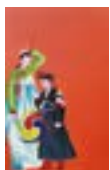
5.22-5.27
박선희 '오래된 미래'
부평아트스페이스



5.30-6.4
이희영 '창-존재감의 통로'
금련산갤러리



6.1-6.30
정시네 개인전
스타필드 작은미술관



6.13-6.18
형맥희 정기전
금련산갤러리



6.14-6.20
임이정개인전
더스타갤러리

부산갤러리 전시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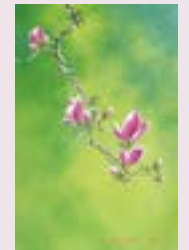
부산갤러리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41-1 인사아트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부산미술협회가 운영하는 전시공간입니다.



5.3-5.8 이석자 개인전



5.3-5.8 최해숙 개인전



5.15-5.15 최영조 개인전



5.17-5.22 류동필, 최세학
2인전



5.24-5.29 박영희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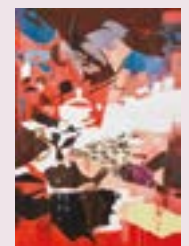
5.31-6.5 박은희 개인전



6.7-6.12 박종민 개인전



6.7-6.12 조용문 개인전



6.14-6.19 최금파 개인전



6.21-6.26 임창석 개인전



6.28-7.3 신정무 개인전



6.26-7.2
부산미술협회 한국화분과전
부산시청, 금련산갤러리

부산 미술

등록번호 부산남.리00005

- 발행인 : 박태원
- 발행처 : 사)부산미술협회
- 편집위원 : 김성현 · 김종원 · 정연은 · 진수아
- 편집기자 : 김정미
- 주소 : 48501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 (대연동) 부산예술회관 402호
- Tel. 051) 632-2400 Fax. 051) 644-4183

제43회 부산미술제 개최요강

주최 : 부산광역시, 사)부산미술협회
 주관 : 부산미술제운영위원회
 장소 : 벡스코 제2전시장 4홀(A)
 기간 : 2023년 10월 13일(금)~10월 16일(월)

출품대상 : ① 부산미술협회 회원 (단, CMS 등록된 회원)
 ② 비회원: 본 협회 회원 1명이 추천하는 자

출품수 : 1인 1점에 한함

출품자료 제출일자 : 2023. 7. 31(월) 오후 5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마감 (*반드시 기한엄수)

자료제출장소 : 부산미술협회 사무국 (부산 남구 용소로 78
 부산예술회관 4층 402호 (우)48501)

자료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접수, 웹하드 (www.
 webhard.co.kr) 웹하드(ID: taewon/비밀번호: 2004
 /폴더명: 제43회 부산미술제→회원, 비회원→각 부문별)

작품출품규격

구분	규격
평면 (회화)	15호 이내(규격 엄수) - 가로 액자포함 가로 65cm 이내
디자인	A1사이즈 이내 - 세로작품 권장
입체 (조각), 공예	80cm× 80cm× 180cm이내 좌대포함 *(입체작품 좌대 개인준비) 도난의 우려가 있는 소형의 작품이나 귀금속 공예 등은 투명보호 상자를 반드시 포함하여 출품하여야 합니다.
영상, 설치, 행위미술	출품원서 검토 후 전시공간 조정 *(입체작품 좌대 개인준비)
서예·문인화	전지1/2 이내의 세로작품(가로작품 액자포함 65cm 이내)

출품료 : 회원 8만원 (도록은 1인당 1부씩 배부)
 비회원 20만원 (도록은 1인당 부씩 배부)
 ※ 출품료는 출품원서의 제출마감 기일인 2023년 7월 31일(월) 이내에 납부
 ※ 아래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

입금계좌 : 부산은행 022-13-001105-2
 (예금주 : 부산미술협회 박태원)

문의 : 사)부산미술협회(전화051-632-2400 홈페이지http://
 www.bfaa.or.kr)



2023 BFAA 아트페어

주최 : 사)부산미술협회, KBS부산방송총국
 주관 : 2023 BFAA 아트페어 운영위원회

장소 : 벡스코 제2전시장 4홀(B, C, D)
 기간 : 2023년 10월 13일(금) ~ 10월 16일(월) (4일간)
 전시장르 :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디자인,
 서예, 판화, 문인화, 수채화, 민화·불화 등

행사구성 : 미술협회회원- 선정작가 부스
 지역대학연계 청년작가 초대전,
 아트마켓(평면·입체, 공예, 입주작가),
 시민참여형 공모우수작 특별전,
 조각품특별전

참가신청 접수 및 부스비 납부기간 : 2023년 7월 10일(월)
 ~ 7월 21일(금) 17시까지

※ 부스비 납부가 안 될 경우에는 참가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종합도록자료 제출 : 참가자는 종합도록에 들어갈
 작가사진, 프로필, 작품 이미지 자료 1점

출품자료 제출일자 : 2023년 7월 31일(금)까지
 인터넷 제출 ① 웹하드(www.webhard.co.kr)에

타입	수량	크기	기본제공	부스비
A 부스	74개	좌우측 2m, 전면벽 5m, 높이 3m	1m×3m 9장, 조명등 4개, 책상 1개, 의자 1개	회 원: 100만원 중 간: 120만원 비회원: 130만원
B 부스	29개	좌우측 3m, 전면벽 6m, 높이 3m	1m×3m 12장, 조명등 7개, 책상 1개, 의자 1개	회 원: 150만원 중 간: 170만원 비회원: 190만원
C 부스	28개	좌우측 2m, 전면벽 1m+2m 높이 3m	1m×3m 16장, 조명등 8개, 책상 1개, 의자 1개	회 원: 220만원 중 간: 250만원 비회원: 270만원

접속 후 로그인(아이디 : bfaa21/ 비번 : 2004) ②
 부스전/초대전 폴더선택→참여신청 작가명으로 폴더생성
 → 자료제출
방문 제출 :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 부산예술회관 4층
 402호 부산미술협회
부스 배정 : 부스 위치는 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부스 추첨
 - 일정 : 2023년 8월 11일(금)
 - 장소 : 부산미술협회 사무국
입금계좌 : 부산은행 101-2046-8532-01
 (예금주 : 사단법인부산미술협회 박태원)
 문의 : 사)부산미술협회(전화 051-632-2400 홈페이지
 http://www.bfaa.or.kr)

백년을 함께 할 기업

'오직 고객에만 답이 있다'

고객이 요구하는 이상의 기술력을 위해 오랜시간 기본을 다져왔습니다.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멋진 결과를 만들어 내는 믿음의 철학을 품어왔습니다.
 고객과 함께 할 앞으로의 백년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는 기업으로 남겠습니다.
 ..결국 광동건설이 품고 있는 높은 가치는 고객에게 있습니다.

광동건설(주)

대표이사 김규학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당대로 1988, 2층(남산동)
 전화 051-582-2880
 팩스 051-514-8955
 홈페이지 www.khenc.com



* 본 간행물은 2023년 부산광역시시비를 일부 지원받아 제작합니다.